

晚庵 崔益鉉과 黑山島

殷 相 五

(郷土史 研究 委員)

만암(晚庵) 최익현(崔益鉉)선생의 친필 “箕封江山 洪武日月”의 8字는 선생이 유배 생활을 했던 흑산면 천촌리(黑山面 淺村里)에 있는 손바닥 바위(指掌岳)에 새겨져 있다.

또한 면암 최선생 적로유허비(勉庵 崔先生 謫盧遺墟碑)는 선생의 고매한 애국 정신과 후학 양성을 위한 노고를 잊지 못해 1924년 9월에 그의 문하생으로 오준선(吳駿善), 임동선(任東善) 등이 뜻을 모아 지장암 바로 앞에 세운 것이다.

“本貫은 慶州 崔氏이며, 字는 贊謙, 號는 晚庵이다.

그는 1833年(음) 12月 5日 京畿道 抱川縣 內北面 嘉臣里에서 出生했으며 崔致遠의 遠代孫으로 和淑公의 27代孫이다.

華西 李桓老 系列의 文人으로 1855年(哲宗6年)에 庭試文科에 丙科로 及第하여 成均館典籍, 司憲府持平, 司諫院 正言, 吏曹正郎(正五品), 新昌縣監, 司憲部掌令(正四品), 戶曹參判, 同副承旨를 지냈다.”

학자이며, 의병장이기도 했던 선생은 1833년(순조 33년) 음력 12월에 경기도 포천에서 동중추(同中樞) 대(垔)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본명은 익현(益鉉)자(字)는 찬겸(贊謙) 호(號)는 면암(勉庵)이다.

당시의 거유(巨儒)인 이항로(李恒老)선생의 문인으로 22세 때 반궁(泮宮=지금의 성균관)에서 수업했으며, 1855년(철종6년) 춘도기(春到記) 명경과(明經科) 순통(純通)으로 급제했다.

그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사간원정언이조정랑(司諫院正言吏曹正郎), 충청도 신창현감(忠淸道 新昌縣監),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에 임명되었다.

이 때 서원(書院)의 철폐 등 흥선 대원군의 정책을 반대하는 상소를 하였고, 호조참판(戶曹參判)으로 승진되자, 다시 대원군의 실정 사례를 날날이 들고 왕의 친정(親政), 대원군의 퇴출을 노골적으로 주장하여 대원군 실각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으나, 군부(君父)를 농락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형식상 제주도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

1876년 1월 고종(高宗) 13년 민씨척족 정권에 의해 일본과의 통상이 논의되자 선생은 도끼를 매고 광화문에 나가 “왜적을 물리치지 않으려면 신의 목을 베라”고 하며 조약체결의 불가함을 역설하였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오불가척화의소(五不可斥和議疏)이며, 이로 인하여 천리나 떨어져 있는 외로운 섬 흑산도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

1879년 3년여의 귀양 끝에 선생은 모든 관직을 사양하고 향리에서 후진교육에 진력하였다.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지고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 되자 선생은 고종의 밀지를 받고 상경하여 왕의 자문에 응하였고, 일본으로부터의 차관금지, 외국에 대한 의부심(倚附心) 금지 등을 상소하고, 친일 매국도배들의 처단을 강력히 요구하다가 두 차례나 일본 헌병들에 의해 향리로 압송당하였다.

그러나 결국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사민(士民)에게 포고문을 내어 항일 투쟁을 호소하고 납세거부, 철도 이용 안하기, 일체의 일본 상품 불매운동 등의 전개를 촉구하였다.

1906년 73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임병찬(林秉贊), 임락(林樂) 등 80명 명과 함께 전라북도 태인(泰仁)에서 의병을 모집, 일본의 배신 16조를 따지는 의거소략(義擧疏略)을 배포한 후 순창(淳昌)에서 약 400명의 의병을 이끌고 관군, 일본군에 대항하여 싸웠으나, 패전하고 적지(敵地)인 쓰시마섬(對馬島)에 갇히는 몸이 되었고, 살 한 톨, 물 한 모금도 적이 주는 것이라 하여 거절하고 굶어 순절하였

다.

선생의 유해는 1906년 11월 12일 환국, 충남 예산 대흥 봉수산(忠南 禮山 大興 鳳首山)에 임좌(任座) 개장(改葬)해 모셨다.

여기서 우리는 선생의 일평생이 애국 충절과 배일 사상으로 점철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선생의 고매한 뜻을 유배지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흑산도 귀양때도 한결같았다.

진리(鎭里)에 큰 서당을 세워 후학들을 가르쳤고, 천촌리에 옹기 뒤로는 일심당(一心堂)이란 서당을 건립하여 마을 사람들의 개화는 물론이고 많은 후학들에게 애국 애족의 자주 정신을 심었다.

선생이 친필로 써서 손바닥 바위에 새겼다는 <箕封江山 洪武日月>이란 글도 우리 나라가 이미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독립된 대한제국임을 강조하여 쓴 글이다.

또한 지장암(指掌岳) 앞에 세운 유허비의 내용도 비록 유배지나마 나라를 걱정하고 후학들을 가르쳤던 공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면암은 충남 청양군(靑陽郡) 목면(木面) 송암리(松岩里) 선영(先塋)에 모셔졌으며, 후손들이 세운 모덕사(慕德祠)라는 사당이 있다.

면암 최익현 선생은 사후(死後) 1962년 3월 10일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을 받았으며, 지금도 흑산면 예리 2구(黑山面 曳里 2區)에는 면암의 자필로 된 비문(碑文)이 남아 있다.